

우리나라 면방직업의 발자취 - 01

- 목화 전래로부터 8·15 해방까지 -

1. 목화 전래 이전의 방직기술

우리나라 방직업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BC 200년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조상들이 언제부터, 어떤 옷을 입고 살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BC 2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토제망추(土製網錘 : 흙을 빚어 만든 그물 짜는 추), 방추거(紡錘車 : 실을 뽑는 추가 있는 수레)를 이용하여 초피직물(草皮織物), 마직물(麻織物)을 짰다고 한다. 그 당시는 부족사회 시대였으므로 많은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생산되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에서 2,100년 전인 BC 100년 ~ AD 100년에 삼한시대(三韓時代·마한·변한·진한)에는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쳐서 견직물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 잡지 색복편(三國史記 雜誌 色服編)에 의하면 약 1,450년 전인 AD 514~439년에 벼슬에 따라 자주빛옷, 붉은옷, 푸른옷, 노란옷을 입게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천연염료로 염색하는 기술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신라 진덕왕 5년(서기 651년), 지금으로부터 약 1,350년 전에 지방 행정제도의 재편성기에 녹(錄), 자(紫), 백(白), 청(靑), 황(黃), 적(赤), 흑(黑), 벽(碧) 등 8색의 군기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삼한시대에 이미 삼을 벗겨 가는 올을 만들어 꼬아서 삼을을 마련하여 날실을 만들어 오투마리에 감아, 베틀을 걸고, 잉아(綜絲)로 날실을 한올씩 걸러서 상하 두갈래로 교대로 갈라 씨실을 넣고

바디로 치면서 짜냈을 것이다.

견직물도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쳐서 고치에서 실을 뽑아 씨실, 날실을 마련하여 베틀에 얹어 짤 것이고, 실이나 천을 잣물에 누인 다음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염색하여 관가나 관인(官人), 승려들의 계급이나 신분의 존비(尊卑)에 따라 구분하여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덕왕으로부터 약 100년 지난 759년경 경덕왕에 와서는 수공업이 발전하여 조정 내성에 산업을 세분하여 여러 부서를 두고 직관으로 하여금 생산을 권장케 하였는데, 그중에서 섬유부서만을 열거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하방(朝霞房) – 조하금(朝霞錦), 조하주(朝霞紬)라는 고급 견직물의 생산을 관장하거나 부서로서 해당 공물품 중심으로 생산

- 금전(錦典) – 여러가지 무늬를 넣어 짠 품질 좋은 고급 비단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서

- 기전(綺典) – 무늬비단 등 고급 견직물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서

- 염궁(염궁) – 직물의 염색을 분장한 부서

- 표전(漂典) – 직물을 빨거나 바래는 일을 분장한 부서

- 마전(麻典) – 삼베직물의 생산 담당부서

- 모전(毛典) – 모직물 직조(織造) 두발정제(頭髮精製) 등을 관장한 부서

- 침방(針房) – 의복 제조와 자수직물 생산 담당부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무늬직물도 짤 수 있었고, 표백이나 염색도 할 수 있었으며, 모직물도 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중국과의 교류나 교역을 통하여 기술을 들여오거나 자극을 받아 발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고려 말 면방직 기술의 시초

면직물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여러 설이 있어 확실하지가 않다. 나·당(羅·唐) 무역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 고려 초기에 남만산물(南蠻産物)이 중계무역형태로 아라비아인을 통해 목면수제품(木綿樹製品), 동화포(桐華布) 혹은 초면제품(草綿製品)이 길패(吉貝) 또는 목면포(木綿布)라는 상품명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원나라로부터 1296년에 목면 410필, 1356년에 백포 2필이 고려섬유수공업사회에 소개된 것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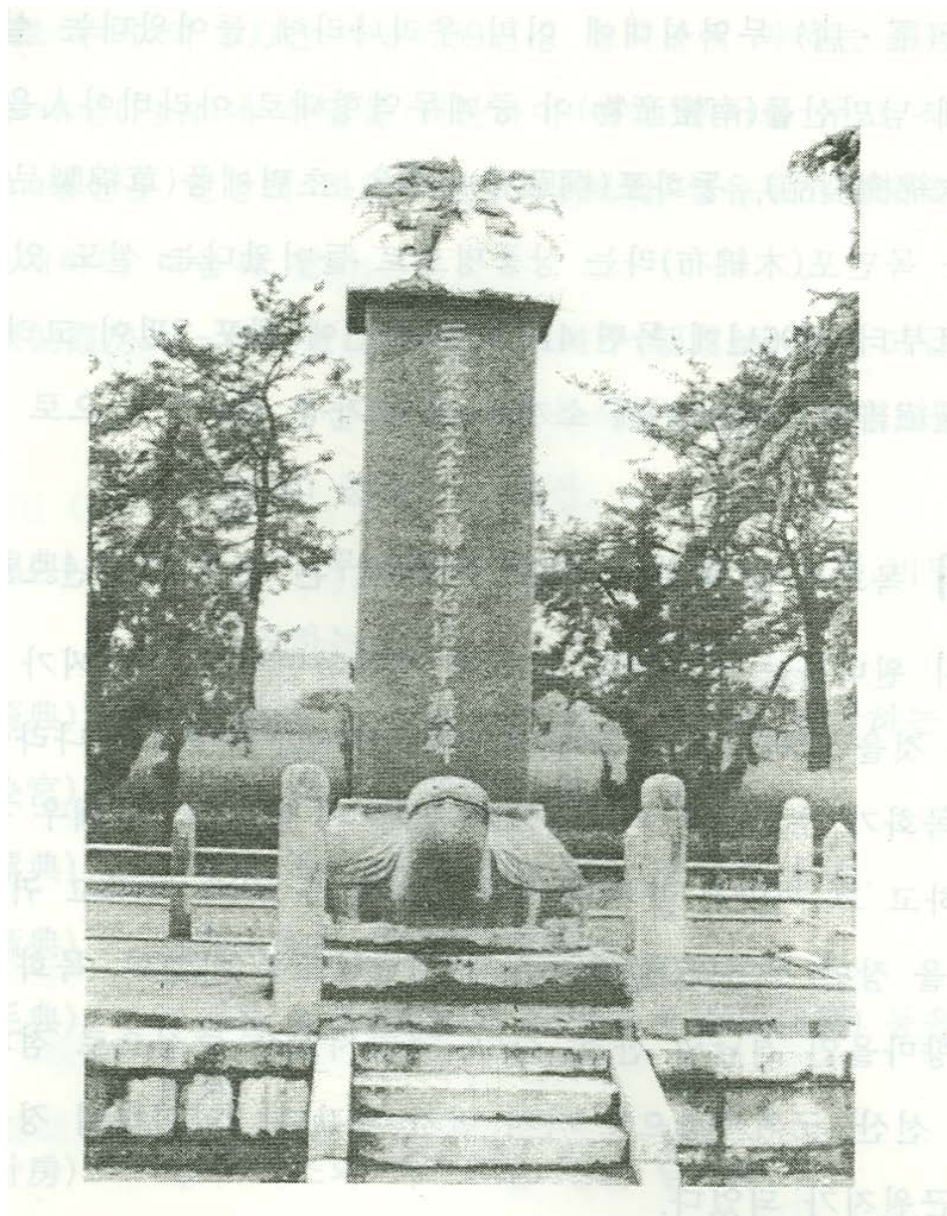
중국의 목화씨가 육로로 고려에 전해져 온 것은 1363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나라는 면직물을 외국에 수출하면서도 목화씨가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문익점 선생이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 이 목화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옷을 해 입히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씨앗을 붓뚜껑 속에 10여알을 숨겨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 씨앗을 장인 정천익에게 재배하도록 하였다. 목화재배는 정천익의 고향 마을인 경남의 산청, 함양, 거창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경북지방의 의성, 선산, 군위지방으로 까지 번져 나갔다. 이리하여 경상도가 목화재배의 근원지가 되었다.

목화재배가 널리 퍼지며 생산량도 늘어나자, 이와 관련하여 목화에서 씨앗을 빼내고 실을 뽑는 기구가 필요하였으나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잘 것 없는 상태였다. 때마침 정천익의 집에 중국의 홍원스님이 들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알게 되어 홍원스님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에게서 솜에서 씨앗을 빼내는 취자거(取子車)와 실을 뽑는 물레의 일종인 소사거를 만들고 베 짜는 기술을 배웠다. 정천익은 하인에게 이들 기술을 가르쳐 주어 마침내 베를 짜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고려 말기에는 1352년부터 1392년 고려가 망할 때까지 40

년동안 왜적의 크고 작은 침략이 468회나 있었으니 40년간 매년 10여회의 침략을 받은 꼴이 되며, 특히 1375년에서 1388년까지는 14년간에 걸쳐 378회나 침략을 받았다. 이를 평균하여 보면 매년 27회 침략을 받은 꼴이 되니 경상, 전라, 충청지방에 끼친 화(口)는 극심하였으므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기후나 토질 등 천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도 목화재배와 면방수공업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림 1> 문익점을 기리는 면화 시배 사적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원내 수공업 직조품은 승려와 노비의 의복이나 사원내 여러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포류를 자급자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에게 헌납하고, 원나라나 명나라에도 보내는 조공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이것이 섬유수공업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의 직조품은 마직물과 견직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면직물도 있었는데, 품질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의 직조기술을 보면 안동포의 경우 직장 한사람이 5자(尺), 5일에 1필(匹), 1년에 20필을 직조하며 직포에는 머슴옷에 주로 사용되는 7새포와 가장 많이 입는 평복에 사용되는 9새포, 가장 발이 고운 최상품인 15새포로 구분하고 있다. 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제작기술에서는 직물의 경사 밀도를 “새(升)”라는 단위로 표시하였다. 10올이 1모, 8모가 1새이므로 1새는 80올이 된다. 직물폭을 1자(척 : 약 30cm - 시대나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약 30cm로 가정함)라고 하면, 7새포는 총 날실수로 560올이 되므로 오늘날의 inch간 밀도로 환산해 보면 약 47올/in 정도이며, 9새포는 약 61올/in, 15새포는 약 102올/in이 된다.

7새포는 밀도가 약 47올/in이므로 사용된 실도 굵고, 따라서 직물도 두껍게 되어 매우 거칠고 뽀뽀한 직포가 될 것이다. 반면에 15새포는 원사가 그만큼 가늘고 매끈해야 in간에 102올을 넣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직물도 얇고 곱고 부드러워질 것이며 또한 짜는 데도 그만큼 능률이 떨어져 최상품으로 비싸게 취급되었을 것이다.

1368년에서 1392년까지의 24년동안 북원과 명에게 보낸 공납용 직물을 보면 대부분이 각종 마직물과 견직물이었지만 이중에 목면포 100필이 들어 있

었다. 목화재배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제직기구나 직조술이 보잘 것 없을 때였으며, 마나 견보다도 목화에서 실을 뽑는 것이 훨씬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물량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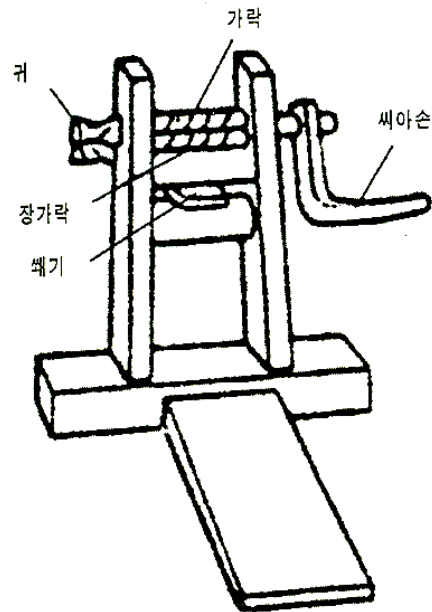
3. 조선조 초기의 면방직

1392년 조선조 개국 이래 초기의 경제는 불교 대신에 유교가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사원(寺院) 경제가 몰락되면서 사원수공업도 관에 흡수되어 관영(官營)수공업이나 농민의 부업적(副業的)수공업 또는 전업적(專業的)수공업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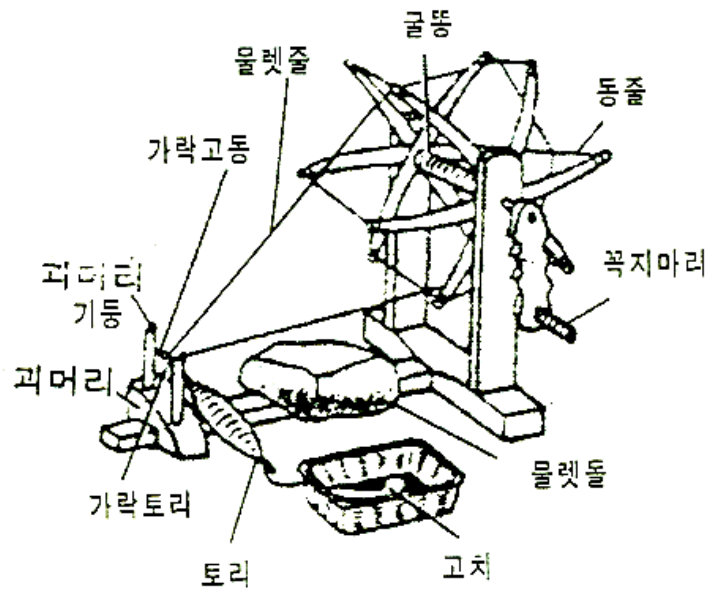
개국 초기의 면방산업은 대부분의 백성은 마직물로 옷을 입었으며, 일부백성만이 면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뿐 물량이 극히 적었으며, 시장에서는 5승포(五升布 : 5새의 올이 굵은 포)를 기준으로 하여 화폐 대신으로 거래되기도 하였으며, 면포세(綿布稅)까지 징수하는 등 생산여건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태종 9년(1409년) 면포 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면포세가 폐지되자 급진적으로 목화경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종 14년부터 처음으로 대일수출이 개시되었으며, 1419년 이후부터는 본격화되어 근 200년간에 걸쳐 대일본 면포공급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종 22년(1440년)경에는 면제직기구를 개량하여 새로운 물레와 베틀을 만듦으로써 면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화 솜에서 씨앗을 빼내는 씨아는 취자거를 개량하면서 교거(口車) 또는 연거라고도 불리었다. 솜을 자아서 실을 뽑는 소사거는 방거(紡車) 또는 윤대(輪臺)라고도 불리었으며, 문익점 선생의 손자 문래의 이름을 딴 “물레”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또한 문래의 동생이었던 문영이 짠 피륙은 문영의 이름을 따서 “무명”으로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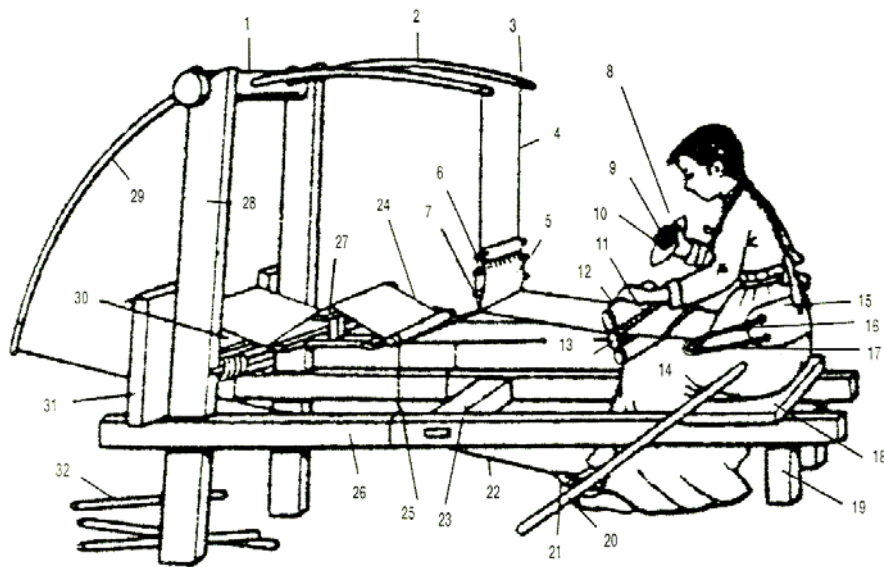
<그림 2> 씨아



<그림 3> 물레

세종은 당(唐)목화를 수입하고 품종개량도 하여 1475년에는 평안, 황해, 함경도 등 북도에까지도 목화재배를 보급함으로써 전국에서 목화가 생산되어, 1495년에 이르러서야 많은 백성들이 솜으로 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면서 국용면포로서의 산업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목화는 달리, 겁괘(劫卦), 길괘(吉卦), 고괘(古卦), 고종(古終), 면화, 목면, 양화 등 각종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초기 100년경의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섬유수공업의 중점은 마방에서 면방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 삼베 · 무명 · 명주와 같은 피륙을 짜는 재래식 가정용 직기, 본틀과 부속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료는 거의 나무이다.

<그림 4> 베틀

- | | | | | |
|--------|---------|----------|-----------|-------|
| ① 옹두머리 | ② 눈썹대 | ③ 눈썹노리 | ④ 눈썹줄 | ⑤ 잉아 |
| ⑥ 잉앗대 | ⑦ 속대 | ⑧ 북 | ⑨ 북바늘 | ⑩ 북꾸리 |
| ⑪ 바 디 | ⑫ 바디집 | ⑬ 바디집 비녀 | ⑭ 최활 | ⑮ 부티 |
| ⑯ 부티끈 | ⑰ 말코 | ⑱ 앞을깨 | ⑲ 베틀 뒤틀기둥 | ⑳ 다을대 |
| ㉑ 베틀신 | ㉒ 베틀신 끈 | ㉓ 가로대 | ㉔ 눌림대 | ㉕ 눌림끈 |
| ㉖ 베틀다리 | ㉗ 비경이 | ㉘ 베틀 앞기둥 | ㉙ 베틀신 대 | ㉚ 사침대 |
| ㉛ 도루마리 | ㉜ 뱀댕이 | | | |

이 당시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품은 동, 납, 철, 금은, 소목(蘇木 : 藥材), 주목(朱木 : 가구용, 붉은 빛 염료, 약용), 유황, 백반, 염료, 약재 등이 있고, 우리의 수출품은 면포, 저포(綜布), 마포, 모피류, 인삼 등으로 면포, 저포, 마포 등이 수출 대중품(大宗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마직물의 품질이 11승포였음을 볼 때 이 당시의 제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염료는 상당량이 군기나 군장에 소요되었다고 한다.

명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명주실로 바탕을 약간 거칠게 짠 갑(紗)이나 두껍고 광택이 나게 짠 비단 등이 들어와서 국내 상류사회의 소비성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 1413년 태종은 이들의 사용을 금하고 국산 저포(苧布)나 세저포(細苧布)를 권장하였고, 1443년 세종은 관리의 백관복까지 검은 마포를 사용케 하였으며 또한 국산 섬유제품의 염색에 있어서도 값비싼 대홍색(大紅色 : 적색보다 짙은 색) 염료 사용을 금하고 직위와 급수에 따라서 홍(紅), 청록(靑綠), 토황(土黃), 초록(草綠)을 사용케 하였다.

1457년 세조는 일반 서민의 의류 소재와 색상에 있어서 면포는 아청색(鴉靑色 : 검은 빛을 띤 푸른빛), 회색(灰色), 토홍색(土紅色), 견포는 유청색(柳靑色)이나 백색, 마포는 흑색, 저포는 백색만을 사용토록 제한하였으며, 1490년 이후부터는 면포에 있어서는 회색, 홍색, 백색으로 제한하여 입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1502년 연산군은 국내 기술자를 명나라에 파견하여 염색기술을 습득케 하였고, 1517년 중종은 농상근려교서(農桑勤勵敎書 : 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도록 격려하는 명령서)를 반포하였으며, 1536년 중종은 의복제도의 개선, 1541~1549년에 걸친 혼인 사치금지시책, 1519~1522년 간의 악포(惡布 : 품질이 나쁜 천) 직조를 금하는 시책 등을 써서 조선조 건

국 이후 100여년간에 걸쳐 섬유수공업 육성책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국내 섬유산업의 기반을 점차 확고하게 다져갈 수 있었다.

한편 이 기간중에 점차 명나라와는 교역이나 조공품과 회사품의 양이 늘어나 조선조 양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명나라의 고급 섬유제품의 유입은 국내 섬유수공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